

연구소 소식

2013 영차프로젝트 결과보고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3 영차프로젝트 결과보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영차프로젝트 5차년도 사업(책임자: 권미경 부연구위원) 성과와 더불어 시범기관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활성화 방안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2013년도 성과보고에 이어서는 4개 권역별 유보협력 쌍 대표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김복남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한 대구, 울산, 전남 지역 지원체계 및 학계 대표가 유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창립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기념행사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기념식에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을 비롯하여 원로 교

수 및 관련 학회와 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축하메시지 문을 연 기념식에 이어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에 재직 중인 제이 벨스키(Jay Belsky)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



다. 벨스키 교수는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를 주제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유전 소인 발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3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책임자인 도남희 부연구위원이 본 사업의 개요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논문 시상도 이어졌다. 오후 일정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 특별강연으로 시작되어, 6개의 소주제에 따른 총 18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11월 18일(월) 오후 2시, The-K 서울호텔 동강 A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장미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부연구위원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실태'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실태'에 대해 발제하였다.

종합토론은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한림대 이홍석 교수, LG사랑 어린이집 우현경 원장, BM행복심리센터 문현실 원장, 한신대 재활학

과 이경숙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영삼 수석연구원, 안산초치고 강정훈 교사, 명지 I will센터 송인철 연구원,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 교육공학실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김도완 과장과 김선숙 연구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소 최은영 누리과정연구팀장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 시간’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남대학교 김영옥 교수(교육부교육과정심의회 유치원위원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정옥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배방유치원장),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학촌유치원장), 이혜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아교육분과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충청지역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3일(화) 오후 2시, 대전 소재 우송대학교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3~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1년, 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충청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지난 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의 아래 발족하여 운영해 온 ‘누리과정 발전포럼’ 2차년도 사업운영의 일환이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의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참여대상 지역으로 하였다.

본 연구소 장명림 기획경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부 김선숙 연구관의 환영사에 이어 대전광역시청 저출산고령사회과의 송기용 과장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주삼 과장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미경 부연구위원은 ‘3~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청주 수안들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의 김영수 원장과 대전 중앙유치원 한양희 교사가 각 기관에서의 누리과정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은 이미화 정책연구실



장의 진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성연 호서대학교 교수, 나중혜 한남대학교 교수, 정미영 천안시아이편한어린이집 원장, 곽효경 연세유치원 교사, 박희숙 충북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미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BS-KICCE 공동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8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EBS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방송공사(EBS)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인 ‘육아정책연구소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위원 다수를 비롯하여 교육부 및 EBS 교육방송연구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EBS 교육방송연구소 송경화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과 EBS 신용섭 사장의 인사말과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박주용 신임과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립 기획경영실장과 EBS 유아·어린이특임부의 이은정 부장이 각각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KICCE-EBS 협력 방안’, ‘EBS 유아 콘텐츠의 누리과정 적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장에 재임 중인 최연철 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비롯하여 이문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수연 경희대병설경희유치원 교사, 김현진 서울청사푸르미어린이집 원장, 전제광 마포구청직장어린이집 학부모,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하였으며, 좌장은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i-POL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모니터링 대표위원 하반기 자문회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8일(금) 오후 7시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i-POL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서포터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정책 고객 간 소통과 연구소 홍보 및 주요 추진 사업 관련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2월 11일(수) 오후 7시에는 i-POL 모니터링단 대표위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은영 연구기획팀장이 2013년도 i-POL 서포터즈 운영 등 사업 수행 내역을 보고함에 이어 대표위원들은 올해 본 사업 운영상의 아쉬운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2014년 i-POL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3년 제5·6차 육아지원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9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누리과정연구팀 주관으로 2013년도 제5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3-5세 누리과정」 연구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본 포럼에서는 '3, 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등 2013년도에 본 연구소가 수행한 누리과정 관련 5개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12월 13일(금)에는 동향분석통계팀 주관으로 제6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어린이 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사교육 실태’를 주제로 본 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이 발제하였고 지정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염지숙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김혜금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3년 기본과제 최종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1일(금)~16일(수) 대회의실에서 2013년 기본과제 최종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보고서의 질과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자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12개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유관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개진되었다.

KICCE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EPPSE 1997-2014: The power of Pre-school’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속의 저명한 연구가 브렌다 타가트(Brenda Taggart)는 유아교육 및 보육

의 효율성을 장기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영국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수립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의 김미정 센터장과 이미경 연구원을 비롯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직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